

제 50 편

아삽의 시

A.

- 01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
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
- 02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
- 03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
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
- 04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
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05 이르시되
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
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
- 06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(셀라)

B.

- 07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
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
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
- 08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
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
- 0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
- 10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
- 11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
-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
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
- 13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
-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
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
-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
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

C.

16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

네가 어찌하여 내 울레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

17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

18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

19 네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

20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

21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

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

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

네 죄를 네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

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

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

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

나를 영화롭게 하나니

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